

거인의 퇴장... “나라 부름받고 경제부흥에 헌신” 추도

故 신격호 회장 그룹장 영결식

‘평생의 꿈’ 롯데월드몰서 열려
그룹 임직원 등 1400여명 참석
장지 울산 울주군 선영에 안장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롯데그룹 임직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아들 신정열씨가 영정을,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아들 신유열씨가 위패를 들고 들어서며 시작됐다.

고인의 부인인 시계미즈 하츠코 여사와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영정을 뒤따랐다.

명예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흥구 전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전 총리는 “우리 국토가 피폐하고 많은 국민이 굶주리던 시절 당신은 모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며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7시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그룹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 여사가 헌화하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몰 8층 롯데콘서트홀에서 그룹장(葬)으로 엄수된 가운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결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으로 운구행렬이 지나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을 향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당신이 일으킨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강한 신념과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움인지 되새기게 된다”며 “당신의 큰 뜻이 널리 퍼지도록 남은 이들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출장 중이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회자가 대독한 추도문에서 “창업주께서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 조국의

부름을 받고 경제 부흥과 산업 발전에 혼쾌히 나섰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거목, 우리 삶이 어두웠던 시절 경제 성장의 앞날을 밝혀주었던 큰 별이었다”고 애도했다.

추모사가 끝난 뒤에는 신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회장도 한 마디씩 했다. 각각 유가족 대표, 롯데그룹 대표로서였다.

신 부회장은 “아버님은 자신의 분신인 롯데그룹 직원과 롯데 고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힘써오셨

다”며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선친의 발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많이 사랑하셨다. 타지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 끝에 성공을 거두시고 조국을 먼저 떠올렸고, 기업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생 실천했다”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기업인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배웠다”고 했다.

신 회장은 “오늘의 롯데가 있기까지 아버지가 흘린 땀과 열정을 평생 기억하겠다”며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아버지의 태산 같은 열정을 떠올리

며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운구 차량은 신 명예회장 평생의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돈 뒤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떠났다.

이날 자리에서는 유가족과 친지, 그룹 임원들이 차례로 꽃을 올렸다. 신 회장의 일대기도 상영됐다.

신 명예회장은 향년 99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을 모신 운구차량은 그의 평생의 숙원인 롯데월드타워를 한 바퀴 돈 후 장지인 울산 울주군 선영으로 향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소·부·장에 2.1조 지원... 日 의존 낮춘다

2020년 소·부·장 대책 시행계획 예산 2.5배 늘려 이달부터 집행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수입 안정성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22일 인천 서구의 포도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로 가장 피해가 우려됐던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도레지스트)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

력을 2배 이상 확대했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포도레지스트는 유럽산 등 제품을 시험중이고, 자체 기술개발과 미국 듀폰 등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책정한 관련 예산 2조1000억원을 당장 1월부터 집행해 나가

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관련 예산을 지난해 8325억원에서 2.5배 늘려 잡았다. 특히 외국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체 예산의 약 57%인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1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소와 나노팜 등 15개의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협의체 등 정부 연구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용수 기자 hys@

롯데그룹 임직원 일동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

이번 고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상사시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는 것이 도리어 오나 아직 황망중에 있어
우선 지면을 빌려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부인 시계미즈 하츠코

아들 신동주 신동빈

딸 신영자 신유미

며느리 조은주 시계미즈 마나미

배상

우한 폐렴 확산... 설 연휴 '비상'

美·日 등서도 확진... 총 309명, 사망자 6명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며 비상에 걸렸다. 국내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건당국이 대응 체계를 마련한데 분주한 상황이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는 우한시가 있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270명으로 늘어났고, 베이징과 상해 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39명의 추가로 발생하며 총 309명으로 집계됐다. 중국내 사망자도 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국과 일본, 대만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한시에서 유입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감염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 안정적이다. 현재까지 조사대상 유증자는 16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아직까지 1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11명은 음성으로 밝혀졌으며, 4명에 대한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다만,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해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의 전파력이 메르스(중공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염증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가 메르스는 0.4~0.9명, 사스는 4명으로 알려졌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환자 추이를 보면 메르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주를 지나 환자가 대거 발생한다면 사스 수준의 전파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과 환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전염 방식이 공기 전파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대부분 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